

## News

### 주담대 6%인데 '하늘의 별 따기'된 적격대출, 출줄이 한도 소진

머니S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만간 6%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주택금융공사의 주담대인 적격대출이 빠르게 소진 중… 하나은행, 14일부터 적격대출 판매 중단  
우리은행, 분기별 적격대출을 월 단위로 조개서 판매하지만 지난 3일 하루만에 330억원 한도 모두 소진… 국민, 신한은 취급하지 않아 사실상 5대은행 중 적격대출 받을 곳은 없음

### 토스뱅크, 다음주 3000억 규모 유상증자…대출 전쟁 앞두고 실탄 장전

아주경제

토스뱅크, 다음 주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단행… 이로써 총 자본금은 8,500억원으로 증가… 확보가능한 예수금 한도도 대폭 증가  
인터넷전문은행별 상품 포트폴리오 확대하며 본격적인 경쟁 시작한 가운데, 원활한 여·수신 운용 대비 목적… 업계 안팎에서 수시입출금식 통장 연 2% 금리 관련 역마진 우려 제기

### 은행권 “2030 잡아라”… ‘경쟁 지양’ 경고에도 청년희망적금 유치전 치열

조선비즈

은행권, 오는 21일 출시 예정인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통해 2030 고객군 포섭을 위한 경쟁 치열… 11개 시중은행들, 각 사 앱을 통해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중  
서민금융진흥원, 동 현상을 우려해 경쟁 지양 관련 공문 보냈음에도 프로모션 경쟁 치열… 최고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국민, 신한, 농협은행인 것으로 나타나…

### 지방은행, 지역경제균형발전 역할? …3년간 지방점포만 ‘77개 폐쇄’

데일리안

지방은행(BNK, DGB, JB) 점포수, 지난해 9월 기준 858개로 3년 새 77개 점포 사라져…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경제 침체가 주요 요인  
또한 비대면 금융 확대로 은행 방문 수 감소도 이유… 다만 일각에서는 지방은행 설립취지인 지역경제균형발전에 어긋난다는 지적 제시

### 차보험료 인하 '신호탄' 쏜 삼성화재…4월부터 1.2% 낮춘다

연합인포맥스

삼성화재, 오는 4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평균 1.2% 인하할 계획 발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 축소로 사고 감소해 손해율 개선 효과 나눔 목적  
경쟁사들도 구체적인 시기 확정하지 않았으나 자동차보험료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 다만 보험개발원 요율 검증 일정에 따라 일정 소폭 변동 가능성 존재

### 역대급 실적에도… 보험사들, 배당성향 낮추는 이유는?

머니S

보험사들, 작년 역대급 실적에도 배당성향은 예년보다 줄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삼성화재 45.4%, 메리츠화재 10.1%, 삼성생명 36.7%  
금융당국의 배당 축소 권고 이후 배당금 확대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 업계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고민 중

### 금융위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등 혁신금융 추가

아이뉴스24

금융위원회, 국내 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포함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5건 신규 지정을 통해 현재까지 총 210건 지정  
오는 9월부터 각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 가능

### 거래소, 다음달 28일 3개월 무위험지표금리 선물 시장 개설한다

디지털타임스

한국거래소, 다음달 28일 3개월 무위험지표금리(PFR) 선물시장 개설… 작년 금융위가 발표한 PFR 선정결과 및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  
매 영업일 공시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를 선물만기 직전 3개월 동안 평균한 금리로 최종결제일에 현금결제되는 상품…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 발행, 대출상품 개발 용이 기대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